

부산상공회의

Story for 부산CEO

Show

4월호
Vol. 625



Contents

MAGAZINE 2024 vol. 625



06



08



16



부산상공회의소Show
바로가기

발행일 2024년 4월 1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양재생
편집인 이규중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편집·인쇄 (주)프린테크 051-301-3113

부산상공회의소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INSIDE BCCI

04 부산상공회의소 제25대 양재생 회장 당선인사

06 제25대 의원부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의원총회

08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10 부산상공회의소 제25대 의원부 명단

취향저격

16 역사 속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을 아십니까?

20 힐링 여행지
꽃길 따라 떠나는 봄 여행

24 문화의 향기
끈기 있게 도전하는 삶을 보여주는 영화
‘행복을 찾아서’

26 고전 속 지혜
아우라는 어디서 나올까



20



24



28



32



38

부산상공회의소 공식 SNS 채널



YouTube



Instagram



facebook

소통공간

28 기업포커스
(주)금천게르마늄

32 LOOK AT ME
(주)모두싸인

경제 인사이드

36 Insight for CEO
지속가능 리더십을 실행하라

38 웹툰으로 보는 경제
반도체의 미래 혁신 기술 ‘Si반도체’

40 지식의 창고

멤버스 라운지

42 지역 경제계 주요 소식

46 부산상공회의소 지원사업 안내
- 일자리 매칭 플랫폼
-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신규 희망공제 사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미래 친환경/에너지 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인재 육성 사업



42



존경하는 회원기업인 여러분!
부산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 양재생입니다.

먼저 저를 25대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회원기업인
여러분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계 화합을 위해 합의추대라는 통 큰
결정을 내려주신 장인화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5대에는 명예회장으로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
드리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25대 의원부 선출을 통해 지역 경제계가
통합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어렵게 만든 통합의 에너지를 잘 모아서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와 회원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산상의회가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경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과 같은 당면현안
해결이 시급한 만큼 부산상의회가 앞장서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경제의 미래라 할 수 있는 관광·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25대 역점사업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고자 하는 만큼 회원기업인
여러분께서도 가지고 계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차질 없는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거점항공사
확보를 통해 부산을 동북아 복합물류 허브로 성장
시키고, 제조업의 신산업 진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인화 회장님이 많은 애정을 쏟은
스타트업 지원은 물론이고 젊은 기업인들의 아이
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하겠
습니다.

이제는 부산이 노인과 바다뿐인 도시라는 오명을
씻고, 청년이 되돌아오는 역동적인 산업구조를
갖춘 도시로 탈바꿈 시키는데 부산상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역대 회장님들의 헌신 덕분에 부산상의회
대외 위상도 그만큼 확대되어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대 의원부는 부산상의회 역할을 비단
경제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공헌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식수문제
만큼은 제 임기 내에 꼭 해결하고자 합니다. 필요
하다면 부·울·경 지자체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상의회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재정확충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그래서 제 임기에 부산상의 숙원사업인 상의
회관을 북항으로 이전하는데 있어 첫 단추를
깨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술선수범
하여 상의발전기금도 내겠습니다.

제가 지금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신뢰와 긍정의 마인드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좌우명인 ‘된다!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처럼 부산경제의 발전과 지역경제계의 화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부여받은 소임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회장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 지역 경제계가 함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부산상의회가 힘찬 도전을 통해 긍정의 부산
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장인화 회장님과 회원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제25대 회장

부산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 은산해운항공(주) 양재생 회장 선출



전임 장인화 회장과 신임 양재생 회장

신임 양재생 회장의 공식적인 임기는 3월 19일(화) 부터 시작으로 25대 의원부 출범식 및 회장 이·취임식은 4월 15일에 개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임시의원총회를 통해 3명의 감사를 선출하였고, 임원진인 부회장 18인과 상임의원 30인 선출은 향후 의원부를 이끌어가는 주축인 만큼 신임 양재생 회장과 전형위원 4명이 별도의 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상공회의소 힘찬 도전
#긍정의 부산경제
#신산업 진출 적극 지원
#부산 지역 경제 현안 해결



당선 소감을 발표하는 양재생 회장



1, 2 의원총회에 참석한 25대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양재생 회장

3월 15일 25대 의원부 임시의원 총회를 통해 양재생 회장 공식 추대, 임기 3월 19일부터 시작

부산상공회의소는 3월 15일(금) 14시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제25대 의원부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25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양재생 은산해운항공(주) 회장을 선출 하였다.

신임 제25대 의원부가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날 열린 임시의원 총회는 정원 120명중 9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되었다. 이번 회장 선거는 양자 경선으로 진행된 지난 선거와는 달리 장인화 회장이 지역경제계 화합을 위해 일찌감치 연임 의사를 접고, 차기 회장으로 양재생 회장을 추대하면서 사실상 결정이 난 상황이었다.

또한 의원총회의 임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기 3년의 상근부회장도 이번 임시의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양재생 신임 회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임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양재생 회장은 “경선이 아니라 합의추대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지역경제계가 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당면현안은 물론이고 복합리조트 유치 및 스타트업 육성 등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충에도 임기 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월 20일(수) 오후 3시 63컨벤션센터에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공업 진흥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상공인 208명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부장관 표창 등의 정부 포상이 수여되었다.



1 윤석열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는 상공인들
2 특별강연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취임 후 첫번째 정부와 함께 하는 공식행사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이 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상공인 1,200여명이 함께 하였다.

상공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함에 있어 기업들이 그 길의 맨 앞에 서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업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했다.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 강연 바로가기



사진출처: 대통령실

양재생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에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끝까지 신경써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초과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답하였으며, 또한 “부산시민 건강을 위해 식수 문제도 꼭 해결해 달라”는 양재생 회장의 건의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부를 통해서 좋은 물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미 지시하였고, 앞으로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



부산상공회의소 제25대 의원부

25th Council of Bus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고문 이하 성명 가나다순



회장
양재생
은산해운항공(주)



명예회장
장인화
동일철강(주)

고문



강병중
넥센그룹



송규정
(주)윈스틸



신정택
세운철강(주)



조성제
비아이피(주)



허용도
(주)태웅



감은근
(사)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부산광역시지회



강동석
동진기공



강성천
(주)동일금속코일센타



구재고
(주)코리녹스



권경진
(주)동원제일저축은행



권기재
세무회계남산



권봉재
(주)신일디엔피



권중천
희창물산(주)



권철우
(주)수흥철강



김경조
경성산업



김광규
(주)서한공업



김귀동
(주)포코엔지니어링



김동건
(주)동화엔텍



김동백
덕부건설산업(주)



김명성
스타우프코리아(유)



김병철
(주)에이비엠



김상진
(주)천우테크



김선오
GSB솔루션(주)



김성직
(주)국제종합건설



김세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양언
(주)백화수산



김영득
이스턴마린(주)



김영주
유창중건설



김운석
(주)덕재건설



김윤기
신평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김 윤 환
(주)영광도서



김 은 수
(주)동일스위트



김 재 업
진성설비(주)



김 정 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김 중 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박 재 복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박 태 영
(주)농심



박 평 재
부산녹산표면처리사업
협동조합



방 성 빈
(주)부산은행



방 영 혁
세진밸브공업(주)



김 중 오
(주)펠릭스테크



김 지 영
안경회계법인



김 진 익
(주)무학남부산지점



김 태 진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동남권지부



김 한 집
(주)강림정공



배 기 일
세화씨푸드(주)



배 수 필
(주)티씨더블유라인



백 정 호
(주)동성케미컬



석 상 우
(주)동성모터스



성 기 인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김 현 겐
(주)팬스타라인닷컴



김 희 근
(주)삼한종합건설



남 영
유일고무(주)



노 길 용
(주)프린테크



류 광 지
(주)금양



성 현 도
(사)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손 영 태
(주)케이씨



송 정 석
(주)삼강금속



송 창 석
(주)윈스틸



송 춘 철
서부산소재산업유통사업
협동조합



류 상 훈
(주)모든



류 원 기
(주)한탐



문 창 섭
삼덕통상(주)



박 대 원
대봉비엠텍(주)



박 대 지
(주)호산개발



신 규 진
(주)아이윈



신 성 수
고려산업(주)



신 유 정
(주)테크유니온



신 재 우
세운철강(주)



신 한 춘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박 동 호
(주)화승네트웍스



박 사 익
(주)경부공영



박 수 관
(주)와이씨텍



박 순 곤
용성씨엔에어(주)



박 용 수
(주)골든블루



안 재 일
(주)성광밴드



안 재 효
진양금속(주)



양 경 준
금융개발(주)



오 경 태
한일스틸(주)



오 린 태
부산자동차부품공업
협동조합



오 용 범
동진로직스(주)



오 종 수
한일냉장(주)



오 치 훈
대한제강(주)



우 영 환
태흥이기공업사



유 재 진
스타자동차(주)



정 형 열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조 시 영
(주)명진TSR



조 양 환
(주)정안네트웍스



조 우 현
대선주조(주)



지 영 만
한국미부(주)



윤 성 덕
(주)태광



이 갑 영
(주)세명종합개발



이 경 신
(주)세강



이 경 춘
(주)화진정공



이 병 길
(주)파크랜드



채 창 일
(주)경성리츠



최 경 훈
(주)고성관광개발



최 금 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
협동조합



최 삼 섭
(주)대원플러스건설



최 순 환
(주)그린조이



이 수 태
(주)파나시아



이 오 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
협동조합



이 원 중
우성진공기술(주)



이 재 등
광명인크제조(주)



이 제 훈
한국선제(주)



최 용 석
지성산업(주)



하 맹 성
부산경남철강유통업
협동조합



허 욱
(주)태웅



허 인 구
(주)성암



허 현 도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
협동조합



이 채 윤
리노공업(주)



장 성 호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장 창 익
(주)부산해사랑



장 호 익
(주)동원주택



전 청 민
(주)MS가스



현 지 호
(주)화승코퍼레이션



홍 원 표
삼원에프에이(주)



이 규 중
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정 수 범
(주)화인인터내셔널



정 용 환
(주)서번



정 원 영
삼영앤티(주)



정 찬 호
농협중앙회부산본부



정 현 돈
(주)시티캡

“
부산상공회의소 제25대 의원부가
부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긍정의 기운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



1 하늘에서 본 우암동 소막마을 전경
2, 3 우암동 소막마을 곳곳의 모습

우암동 소막마을을 아십니까?

글·사진·손민수 부산여행특공대 대표·이바구스트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마을 우암동 소막마을

부산의 대표적인 마을에는 무슨 마을이 있을까? 이 질문을 듣는 대부분은 감천문화마을과 흰여울문화마을을 먼저 떠올릴지 모른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부산여행하면 먼저 노출되는 상위권 관광지로 알려진 마을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도시재생’, ‘로컬’, ‘지역색’ 등의 용어가 부각되면서 지금의 대평동 강강이예술마을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고 피란수도 부산이 꾸준히 회자되면서 피란수도의 생활유산으로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호의 주인공인 우암동 소막마을은 어떤가? 외부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의 마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특별한 역사와 문화와 삶이 가득 녹아있는 마을일지 모른다.

우암동 지명의 유래

소막마을이 있는 우암동은 부산 남구의 여러 동(洞)중 하나이고 감만동과 붙어있는 바닷가 마을이다. 전형적인 배산임수로 뒤로는 산이고 앞으로는 바다다. 지금은 뒤로는 우암동 산복도로가 앞으로는 우암선철로를 가로질러 7부두가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까지 작은 포구마을로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역이다. 물론 우암동과 면해있는 감만동의 감만(戡蠻)이라는 한자가 물리칠 ‘감’에 오랑캐 ‘만’, 정확하게는 남쪽오랑캐 ‘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쪽오랑캐, 즉 왜구들이 자주 출몰해 주목을 안 받기 힘든 지역이었을 거라 추측은 되겠지만 또한 임진왜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 상륙한 곳도 이곳이지만 우암동이 향후 주목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소’ 때문이었다. 우암동(牛岩洞)이라는 지명은 해안매축공사로 지금은 사라진 포구의 언덕에 소모양의 큰 바위가 있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그런지 우암동의 특별한 역사에 ‘소’가 등장하는 것은 필연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특별한’ 우암동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일제가 이 땅의 소를 150만 마리 이상 수탈해 간 사실에서 시작한다.

‘소’ 검역소에서 ‘소막’ 마을로

1909년 6월 일제는 수출우검역소(輸出牛檢疫所)를 이곳에 짓기 시작했고 7월 수출우검역법을 시행한다. 수출우검역





1 우암동에 정착한 피란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
2 1950년대말 우암동의 성창기업 공장

법에 따라 조선의 소는 수출이 되기 전 검역을 받아야했다. 소의 검역을 위해 1919년까지 우암동에는 소막사 19개동이 지어졌다. 관리동, 해부실, 소각장 등을 합해 총 40여개동의 건물이 들어섰고 동시수용 규모 1,400~1,600두로 전국 최대 규모였다. 검역을 마친 소들은 일본과 만주로 보내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일본 소에 비해 성질이 온순하고 먹이도 가리지 않고 주는 대로 잘 먹었으며 덩치도 크고 일도 잘하는 데다 고기맛까지 좋고 가격까지 저렴해 선택받은 것 같지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아픔이었고 국권을 빼앗긴 나라의 설움이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소들은 적기(일제는 감만 우암 지역의 지명을 ‘赤崎’ 아카사키로 바꿨는데 감만이라는 말이 듣기 싫었을 것이다)뱃머리에서 배에 실려 이 땅을 떠났다. 1945년 광복을 맞으며 이출우검역소(1910년 한일병탄 이후 수출이 아닌 ‘이출(移出)’로 명칭이 바뀐다)는 잠시 빈 공간이 된다. 그러다 갈 곳 없는 귀환동포들이 들어오고 피란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적기피란민수용소가 들어서면서 소가 살던 막사는 사람이 사는 집으로 점차 변해갔다. “말도 마라.. 진짜로 마이 살았다 아이가. 집은 좁제 사람은 많제. 밖에 누버 있는게 여사라. 겨울에 억수로 추버가 얼어죽는 사람도 많았고 물 받을 라꼬 변소 갈끼라꼬 줄은 또 을매나 섰던지.. 아이고 그때 생각하믄 참..” 우암동 소막마을 골목에서 만난 할머니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전하는 말이다.

근현대 역사와 함께한 우암동 소막마을의 변화

할머니의 붉은 눈시울을 뒤로하고 들어선 골목의 집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목의 집들과 다른 모습이다. 낡은 기와 지붕위로 개구리눈처럼 튀어나온 소막사 시절의 환풍구에 창문이 달려있고 하나의 큰 지붕아래 웅기종기 이어진 집들도 모양이 제각각이다. 휴전이 되고 경공업발전으로 경제부흥이 일어나던 6~70년대 산업화시기 부산은 일자리가 넘쳐났다. 우암동 주변에는 성창기업, 조선선재, 광명목재, 동명목재가 있었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방직공장, 신발공장 등 많아 가난한 도시노동자들이 썩 집을 찾아 우암동으로 몰려들었다. 하루가 다르게 몰려드는 사람들로 우암동은 또 한번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좁은 집을 한평이라도 더 넓히려고 한사람이라도 세를 더 받으려고 소막의 집은 점점 더 기형적으로 변해갔다. 억지로 다락방을 만들고 세를 주다보니 다락에 오르는 계단은 사다리 같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계단이었고 주인집 안방을 거쳐 다락방으로 오르는 건 다반사였다. 국가등록문화재 715호로 지정된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이 오랜 공사를 마치고 2023년 6월 개관 했다. 소막사의 원형과 실제 집터를 흔적의 복원으로 복원 재생하고 스토리를 입혀 사람들을 맞고 있다.



3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전시관 입구
4 주택전시관 내부 소막사를 보여주는 모습
5 우사속에서 지내는 피란민들의 삶의 양식을 재현한 모습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기법, 집들의 원형과 변형의 형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보는 사람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외부로 연결된 공간에서 만나는 집의 단면은 그시절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 한켠이 쓰러졌다. 소막마을 주택을 보고 다시금 골목을 걷다 보니 제각각의 모양으로 제각각의 삶을 품고 있는 집들이 예사롭지 않다.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를 오롯이 품고 있는 이곳에서 흘려진 눈물과 땀방울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우암동 소막마을에 남겨진 것들

지금은 사람의 흔적을 찾기도 힘들 정도로 한산한 우암동 골목시장을 지나 큰 도로로 나온다. 그나마 부산최초의 밀면

집인 ‘내호냉면’이 시장 안에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는 있지만 우암동의 영화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 대형 트럭이 앞을 지난다. 한때 문현동과 이어졌던 장고개도 재개발로 끊어졌고 장고개 언덕은 아파트공사가 한창이다. 트럭의 뒷모습을 좇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동향성당의 예수상이 두 팔을 벌린 모습으로 우암동 소막마을을 품고 있다. 피란시절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평생을 우암동 사람들을 위해 동향성당에서 봉직했던 ‘판자집의 성자’ 하 안토니오 몬시뇰 신부를 꼭 닮은 예수상이다. 🏰



우암동 동향성당 예수상

꽃길 따라 떠나는 봄 여행

글·사진 문철진 여행작가

완연한 봄이다. 별은 나른하고 바람은 따뜻하다. 들숨에 묻어 있는 향긋한 꽃향기가 잊고 있던 방랑벽을 일깨운다. 남도는 이미 봄꽃이 지천으로 피어나 진한 봄의 정취를 물씬 풍긴다. 일상을 벗어나 잠시 봄을 만끽하는 여행을 준비해도 좋을 터. 4월에 떠나면 좋을 진한 봄 여행지 4곳을 소개한다. 부산에서 한나절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이니 주말을 이용해 훌쩍 떠나보시기를 추천한다.



순천 선암사

조계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선암사는 백제 성왕 때 창건된 천년고찰이다. 매표소를 지나 선암사로 향하는 1.5km의 숲길은 짙푸른 녹음으로 우거졌다. 하늘 높이 솟은 편백나무 숲이 병풍처럼 절집을 엄호하고 싱그러운 차밭이 주변을 감싸며 '산지승원'의 참맛을 보여준다. 덕분에 양산 통도사와 영주 부석사 등 6개 사찰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화려하던 벚꽃이 고개를 떨구고 우수수 바람에 흩날릴 무렵 순천 선암사는 꽃대궐로 변한다. 진한 분홍빛의 탐스러운 꽃송이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숲제 절집을 뒤덮을 기세다. 여기에 동백이며 철쭉, 홍매화까지 가세해 정신이 아득할 지경이다. 겹벚꽃이 피면 관광객들이 몰려들기는 하나 그리 봄비지는 앓기에 고즈넉하게 늦봄을 즐길 수 있다. 4월 중순 이후 겹벚꽃이 만개한다.



1, 2, 3 순천 선암사



경주 금장대

갯 돌아난 새순. 연둣빛 여린 잎은 싱그러움 그 자체다. 여기에
샛노란 봄꽃까지 더해지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봄의 대향연이
펼쳐진다. 경주 금장대가 바로 그런 곳이다. 경주의 서천과 북천이
만나는 절벽 위에 우뚝 솟은 금장대는 기러기도 쉬어 갔다고
할 만큼 빼어난 절경을 자랑한다. 주변 습지에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해 경주시민들의 쉼터로도 각광받는 곳이다. 습지 주변으로
다양한 나무와 풀들이 자라고 있는데 연둣빛 새순이 돋는 4월이면
싱그러움이 넘쳐난다. 유채꽃과 비슷한 갯꽃도 비슷한 시기에
피는데 노란 갯꽃과 연둣빛 신록의 조화가 너무나도 아름답다.
따뜻한 봄별 속에 습지 주변 산책로를 천천히 걷다 보면 봄이
나에게 달려와 와락 안긴다. 습지 한편에 무심하게 놓여 있는 작은
나룻배는 사진 명소로 소문이 자자하다. 4월 중순 이후 찾아가면
된다.



1,2 경주 금장대

창녕 남지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변은 4월이면 샛노란 유채꽃
으로 뒤덮인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유채꽃밭은
전국 단일 면적으로는 최대인 33만여 평에 이른다.
축구장 150개 넓이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강변이 유채꽃으로 가득한 풍경은 상춘객
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워낙 공간이 넓어서
인파가 몰려들어도 크게 붐빈다는 느낌이 없다. 봄
바람이 살랑이는 유채꽃을 보며 강변 산책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고 봄기운이 물씬 느껴

진다. 유채꽃밭 곳곳에 풍차와 조형물, 튜립밭 등
다채로운 포토 스팟들이 마련돼 지루할 틈이 없다.
유채꽃이 절정에 달할 즈음 이곳에선 유채꽃 축제가
열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보탠다. 올해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축제가 열릴 예정인만큼 방문
해보기를 추천한다.



3,4 창녕 남지

진안 마이산

봄꽃의 여왕이라 할 만한 벚꽃. 하지만 그 화려한 자태도 일주일
넘기가 어렵다. 워낙 짧은 시간 피고 지는 탓에 시기를 맞춰 꽃 구경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 전국에서 가장 벚꽃이 늦게
피는 전북 진안의 마이산이 있으니. 마이산은 해발 500m 고원지대에
위치해 인근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3~5도 낮다. 덕분에 4월 중순까지도
벚꽃을 만날 수 있다. 마이산 남부 진입로에서 매표소로 이어지는 길에
30~40년 수령의 산벚꽃 수백여 그루가 벚꽃터널을 이룬다. 탐사로
향하는 길목에 만나는 호수(탐영제) 주변으로도 아름답리 빛나무들도
풍성하게 꽃을 피워 장관이다. 호수 주변 둘레길을 걸어도 좋고 오리
배를 타고 물 위에서 벚꽃 풍경을 즐겨도 좋다. 수많은 돌탑으로 둘러
싸인 탐사와 암마이봉, 수마이봉 사이에 있는 은수사까지 둘러보면
한나절이 훌쩍 지나간다. 🌸



5,6 진안 마이산



끈기 있게 도전하는 삶을 보여주는 영화 ‘행복을 찾아서’

글.김은정 영화평론가·영화의전당 시네도스트



Movie Info

개봉 2007.02.28.
등급 전체 관람가
장르 드라마
국가 미국
러닝타임 117분

하는 일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신은 얼마나 노력했는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와 가족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열정과 끈기로 어려움을 헤쳐 나간 남자가 있다. <행복을 찾아서>는 못한다는 말을 담아두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 남자가 어떻게 성공의 기회를 잡는지 보여주는 영화다.

나는 왜 그럴 수 있을까

1981년 샌프란시스코, 휴대용 골밀도 스캐너를 방문 판매하는 의료 기기 외판원 크리스의 삶을 짚어보기만 하다. 전 재산을 털어 구매한 골밀도 스캐너는 잘 팔리지 않고 각종 세금, 임대료, 아들의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연체 중이다. 몇 달째 수익이 없는 그를 대신해 2교대로 일하는 아내도 점점 지쳐가고, 집주인은 방을 빼라고 독촉하고, 급기야 세금 체납으로 유치장에 갇힌다. 그에게 행복은 늘 쫓아다녀야 하는 대상일 뿐, 절대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는 도심 빌딩 숲 대로변에서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을 본다. 지쳐있는 자신과는 다르게 너무도 밝고 긍정적인 기운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이상함을 느낀다. 이들은 어떻게 행복해졌을까, 나는 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순간, 빨간색 페라리에서 내리는 한 남자를 본 크리스는 그에게 다가가 묻는다. “젊은 나이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나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하나요?” 그러자 그 남자는 웃으며 답한다. “저는 주식중개인입니다.”



사진출처: ㈜팝엔터테인먼트

노숙과 인턴 경쟁

고졸 학력에, 주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크리스는 그 일이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 믿으며 주식중개인에 도전한다. 6개월간 무급으로, 금융 고객을 가장 많이 유치한 단 한 명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증권사의 어려운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과연 그가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후 크리스가 소득 없이 6개월을 버티는 과정은 치절하기까지 하다. 집에서 쫓겨나 모텔을 전전하고, 그마저도 돈이 떨어지자 어린 아들과 지하철역 화장실 바닥에서 잠을 청한다. 회사에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물 마시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한다.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도 곧바로 일어나 달린다. 노숙자 쉼터에서는 잠을 줄여 금융상품 공부를 하고, 주말엔 남은 골밀도 스캐너를 팔기 위해 전전한다. 많은 순간 눈물을 삼키며 이를 악문다.

이 작은 부분이 행복이다.

<행복을 찾아서>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끈기는 매우 놀랍다. 과연 나라면 그렇게 도전하고, 견디고,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한다. 마침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날, 크리스는 그제야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짧게 말한다. 그리고 환하게 웃는 도시의 인파로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환호한다. 이 작은 부분이 행복이라고 말한다. 동화 같은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주인공의 실존 인물 크리스 가드너는 갓난아이를 키우며 노숙 생활을 했지만,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주식중개인이 되었으며 1987년 금융회사 ‘가드너 리치 & Co.’를 설립해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이후 행복을 찾으려는 자신의 열정과 끈기를 회고록으로 출판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과감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분명 우리 앞에도 작은 행복이 있을 것임을 알게 해준다. 🌟



글.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수·작가

역할의 딜레마

무릇 소통에는 막힘이 없는 게 좋다. 원활한 소통은 각자의 역할을 따를 때 이뤄질 수 있다. 부부의 소통은 ‘부부로서’ 하고, 직장 상사와 부하의 소통은 ‘상사와 부하로서’ 했을 때 오해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부작용이 있다. 서로 어떤 사람인지 영영 모르게 된다. 정체성과 역할에 따라 소통이 잘 되었으므로, 그 잘된 소통이 학습되어 일종의 ‘소통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므로 더 이상의 소통은 바라지 않게 된다. 서로 이해했다고 믿기 때문에 이해의 사각지대는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좋은 남편은 남편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고, 좋은 CEO는 CEO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일 것이다. 역시 부작용이 있다. 좋은 남편이 되려는 강박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서 본모습을 잃게 될 수 있다. 좋은 CEO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 이 또한 역할의 딜레마다.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역할 모형을 실천하는 과정에 가깝다. 발터 벤야민이라면 이 과정을 ‘복제’라고 했을 것이다. 역할 수행은 ‘역할 복제’인 것이다.

복제되지 않는 아우라(Aura)

역할만이 아니다. 기술산업시대에는 모든 것이 복제된다.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기술이 아니라도, 인공지능 휴머노이드가 아니라도, 메타버스의 아바타가 아니라도, 모든 것들이 속속들이 복제된다. 어떤 유튜브가 조회수가 올라가면 비슷한 네이밍의 유튜브가 발빠르게 등장하고, 어떤 콘텐츠가 입소문을 타면 스펠오프작들이 폭발한다. 어떤 상품이 인기를 끌면 가격을 낮춘 카피제품들이 더 많이 팔리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소셜미디어를 타고 복제는 의, 식, 주, 삶 전반에 일어난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누군가의 복제 같다. 어디선가에서 본 듯한 얼굴이 거울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나’는 분명 좋은 남편, 좋은 직장인, 좋은 부모, 착한 아들이지만, 그 어디에도 ‘나’는 빠진 것 같다. 내 인생에 ‘나’만 빠진 듯하다. 아우라(Aura)가 상실돼서다.

아우라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공간과 시간으로 짜인 특이한 직물로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멀리 떨어진 어떤 것의 일회적인 현상이다. 아무리 정교하게 제작된 복제품의 경우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예술작품이 갖는 ‘지금-여기’라는 특성, 즉 예술작품은 그것이 존재해 있는 곳에 유일무이하게 현존해 있다는 특성이다.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中)

아우라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는데도 그리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알 것 같은데 결코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무엇’ 혹은 ‘사람’에 내재된 분위기다. 결코 복제되지 않고 진부하지도 않은, 전형적 이지도 않은 특별한 존재에게 아우라가 깃든다.

CEO의 아우라

CEO에게는 오히려 아우라가 성가실 것 같다. CEO에게는 아우라가 아니라 전형적인 이미지, 예측가능한 스타일이 더 편할 것 같기도 하다. CEO에게 아우라가 있다면 직원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우라는 오해될 여지도 있다.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역시 전형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은 ‘이상한 사람’으로 비칠 위험도 있다. 그리고 그 비전형성이 ‘질문’을 이끌어낸다. ‘왜?’라는 질문이 시작되면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도 이어서 따라 나온다. 그런 질문이 전체 맥락을 보게 만든다. 전체를 봐야 성공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CEO에게 아우라가 있다면 회사 전체가 질문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비즈니스 환경은 끊임없이 바뀐다. 성공전략이란 것이 기계적으로 도식화될 수 없는 이유다. 어제의 성공 전략이 내일은 실패의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단순히 수익 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 하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한 세상이다. 만약 CEO에게 그 역할에 맞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없다면, 오히려 좋다. 전형성에서 벗어난 아우라는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덕목이다. 아우라야말로 차별화를 이끄는 시작점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아우라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경험과 타고난 자질, 무의식이 융합된 결과가 아우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억압만 하지 않으면 된다.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되느라, 훌륭한 리더가 되느라 그동안 억눌렀던 아우라를 이제 찾을 때이다. 아우라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잘 억눌러 왔던 것이다.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다. 🧠

대한민국 최초 프리미엄 생수 금천게르마늄 헬시언

금천게르마늄의 헬시언은 산 좋고 물 맑은 충북 옥천 청정 지역의 건운도 광맥을 타고 흐르면서 녹아내린 암반수로, 산소 비중이 매우 높은 천연 게르마늄(Ge), 칼슘(Ca), 마그네슘(Mg) 등 인체에 매우 유용한 광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 독소 배출이 어느 물보다 빠른 ‘몸에 좋은 물’입니다.

국내 최초 게르마늄 샘물 헬시언의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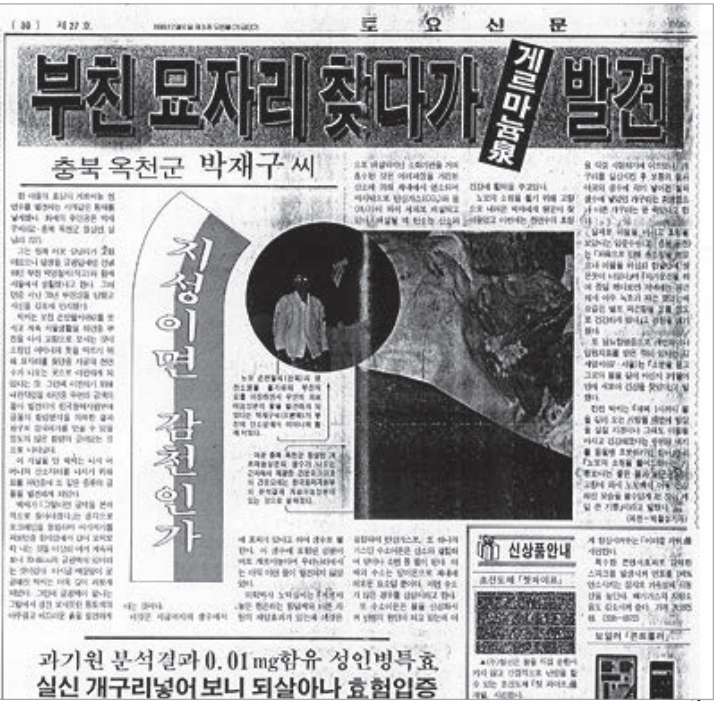
1988년 4월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삼남리에서 금광을 채굴하던 광부들에 의해 국내 최초로 게르마늄 광천수가 발견되었는데, 각종 질병에 시달리던 광부들이 이 물을 마시고 건강해지자 순식간에 입소문이 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게르마늄 광천수를 마시기 위해 몰려들었고, 이 게르마늄 생수를 분석한 결과 기적의 샘물이라는 프랑스 루르드 샘물보다 게르마늄 함유량이 훨씬 높았다고 한다. 프랑스의 루르드 샘물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기적의 게르마늄 샘물로 알려져 1858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과 장애인 그리고 신체 정화를 위한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부터 끊임없이 찾는 샘물이다. 실제



금천게르마늄 생수 공장 전경



헬시언 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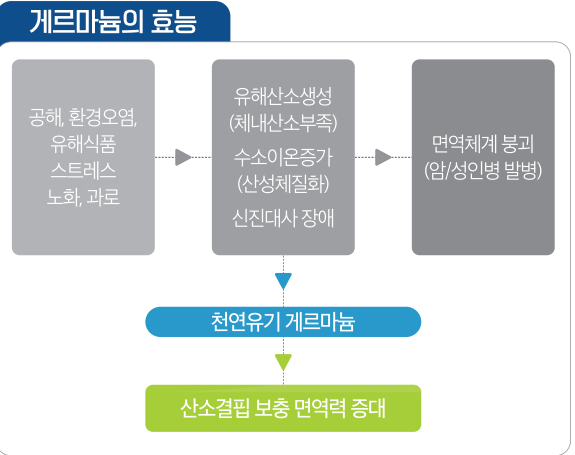
과거 언론에 크게 소개된 금천게르마늄의 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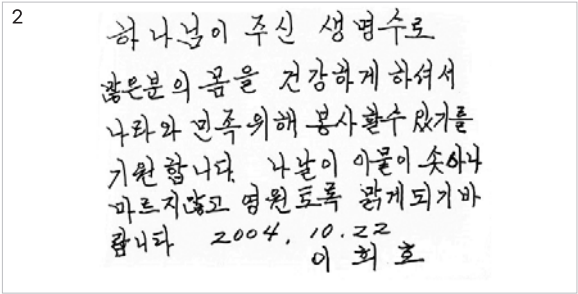
로도 난치병을 치유받은 사례가 있고, 루르드 샘물은 0.1ppb의 천연 유기 게르마늄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충북 옥천군에서 발견된 이 게르마늄 광천수는 600배 높은 60ppb의 천연 유기 게르마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이 게르마늄 샘물의 이름이 오늘의 헬시언 샘물이다.

유기 게르마늄의 효능

게르마늄에는 유기 게르마늄과 무기 게르마늄 두 가지가 있는데 유기 게르마늄은 인체에 좋은 작용을 하지만 무기 게르마늄은 독성이 있어 섭취하면 위험하다. 식물과 광천수에 함유된 게르마늄은 유기 게르마늄으로 인체에 무해하고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한다. 유기 게르마늄은 인체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피를 맑게하고 노화된 세포를 활성화 시키며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게르마늄이 몸 안의 노폐물, 중금속, 독성 물질을 만나게 되면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어 자연치유력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또 항암, 항바이러스 물질인 인터페론을 생성하는 매우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암세포 발생 및 전이 억제와 바이러스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면역세포를 강화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도록 도움을 준다. 게르마늄의 복용으로 인한 암세포 억제효능은 이미 오래전에 입증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페론을 유발하여 암세포의 전이를 막고 암치료를 돕는 것으로 많은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으며 게르마늄의 탁월한 항암효과와 성인병 예방 및 치료작용을 연구하며 게르마늄의 효능과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한 연구 논문도 약 1,000여개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1 금천게르마늄에 방문한 이희호 여사
2 이희호 여사의 헬시언에 대한 감사편지

김대중 전 대통령 영부인 **故이희호 여사도 찾아왔던 헬시언 샘물**
故이희호 여사도 매년 화환을 보내올 정도로 생전 금천 게르마늄의 헬시언 샘물을 자주 애용하였다. 이희호 여사는 옥천에 있는 생수공장에 방문하여 생산부터 유통 전 과정까지 지켜 보고, 이 물이 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맑기를 바란다며 금천 게르마늄에 덕담을 전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은산해운 항공의 양재생 회장도 금천 게르마늄 생수를 10년이란 오랜 기간 꾸준히 마시며 헬시언이 몸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확실히 느껴, M&A시장에 나오지도 않은 금천게르마늄을 인수하게 되었다.

은산해운항공(주)양재생 회장, 헬시언을 인수하다.

양재생 회장은 금천게르마늄을 인수하는데에 회사의 사업 다각화와 이윤 창출보다 직원들에게 한 차원 높은 복지 제공을 위해 인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오랜기간 이 생수를 애용하며 효능을 몸소 느꼈기에 이 헬시언 샘물을 은산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에게 평생 공급하고 싶었다고 한다. 인수를 하며 양재생 회장은 “사람 몸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좋은 물의 가치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말하며 “금천게르마늄을 인수하게 되면서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좋은 물을 평생 선물처럼 공급하게 되어 가슴 벅차고 행복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헬시언을 전 직원과 가족들에게 제공하면서 건강을 선물할 수 있어 더없이 보람되고 행복하다며 직원들을 위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국내생수 중 가장 우수한 헬시언 샘물의 성분

헬시언은 국내 최초의 게르마늄 생수이자 세계 최고의 게르마늄 함량(60ppb)을 가지고 있으며, 경도 160ppm의 경수이다. 경도란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의 정도를 뜻하는데, 경도가 너무 높으면 물맛이 무겁고 뒷맛이 개운하지 않으며, 경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물맛이 싱겁고 맛이 없다. 스웨덴 연구팀 Muss에 의하면 100ppm정도인 먹는 물로 인해 심장병 치사율을 10%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고 또, 경도가 30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위장에 해가 된다고 한다. 연구 결과로 보았을 때 경도 160ppm인 헬시언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좋은 물을 마시면 질병의 80%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이 인체에서 하는 일은 섭취한 영양소를 각 세포에 공급하며 독성물질 및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고, 혈액의 산-알칼리 평형성을 유지

3, 4 헬시언 공급을 위한 포장 과정



하며 체온을 조절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등 여러 일들을 하게 된다. 헬시언은 pH7.6의 약알칼리 생수로 이루어져있기에 다른 생수보다 혈액의 산-알칼리 평형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당뇨 예방과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물 한병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 또한 헬시언은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단일 공장과 단일 취수정만을 통해 안정적인 수질과 일정한 품질의 생수만 고객에게 판매하며, 화학적 처리를 일체 하지 않아 발암물질에 대한 걱정이 없다. 프리미엄 생수 답게 유통시에도 종이박스에 포장하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에 대한 걱정 또한 없다.

- 5 헬시언의 품질검사를 하는 모습
- 6 22년 하반기 수질·미네랄 함량 성적서
- 7 23년 상반기 Clear 패트병 품질검사에서



생수 브랜드 성분 분석표

상호	제품명	미네랄 성분							
		경도	pH	Ca칼슘	Mg(마그네슘)	Na(나트륨)	K(칼륨)	F(불소)	Si(규소)
금천게르마늄	헬시언	160	7.5~8.1	35~53	12~18	10~15	1.0~1.55	0.3	5.4~8.2
A사	A샘물			20.1	3.35	25.06	0.75		
B사	B샘물			12이하	2이하	5이하	0.40이하		
C사	C샘물	16	8	2.9	2.1	5.3	2.1		
D사	D샘물	34	7.6	12.7	1.6	6.8	1.4	0.5	



일본의 유명건강잡지 Walker에서 선정한 세계의 명수 14개 중 하나로 꼽힌 금천게르마늄 생수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헬시언 샘물

헬시언 샘물은 일본의 건강잡지에 실리기도 하였다. 과거 일본의 건강잡지 ‘Walker’에서 세계 14대 명수를 소개하였는데, 국내 생수 브랜드 중 유일하게 금천게르마늄의 ‘청풍명월’이 세계 14대 명수중 하나로 선정되어 프랑스의 페리에, 캐나다의 빙하수인 아이스에이지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현재는 ‘용천옥수’라는 브랜드 명으로 수출 중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 외에도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헬시언의 효능이 알려져 수출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대만으로도 헬시언 수출을 논의중이라고 하는만큼 유기 게르마늄을 듬뿍 함유한 효능을 바탕으로 헬시언 생수가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하기를 기대해본다. 🇺🇸

StartUP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계약을 혁신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국내 1위 전자계약 전문기업 (주)모두싸인

(주)모두싸인은 언제 어디서나 만나지 않고 이메일/카카오톡, 전용 링크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SaaS형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는 국내1위 전자계약 전문기업이다. 모두싸인은 계약의 준비부터 체결, 계약서의 보관 및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전자계약 서비스로, 현재까지 26만 기업 및 기관이 도입하고 680만 명 이상의 이용자의 선택을 받았다.

MODUS/GN



모두싸인 서비스 이미지

부산대학교 앱 개발 동아리에서 시작된 모두싸인

모두싸인의 시작은 부산대학교 앱 개발 동아리 ‘애플티브 (apptive)’다.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이영준 대표는 학교로 돌아와 개발,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모아 앱 개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이영준 대표의 전공인 ‘법학’과 관련하여 ‘주변에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으나 변호사인 친구, 지인들은 정작 사건 수임을 잘 못하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영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창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서 전자계약 서비스로의 피봇

2015년 애플티브에서 만난 개발자, 디자이너와 함께 로아팩토리 (Law of all factory)를 설립한 이영준 대표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 ‘인투로’ 앱을 3개월 만에 개발했다. 베타버전으로 출시한 인투로는 1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고, 이 성과로 ‘장영실 SW벤처포럼’ 최우수상을 받게됐다. ‘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IT기술로 해결하자’는 목표로 출발한 로아팩토리는 법률 문제의 해결 이전의 ‘문제 발생 예방’으로 초점을 맞췄다. 대부분의 민사 사건은 항상 계약서에 있었다. 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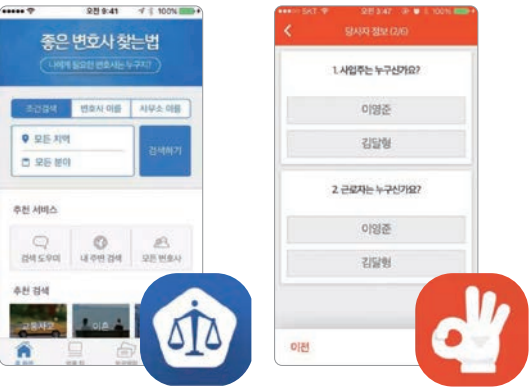


모두싸인 이영준 대표

조항이 빠져있거나,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제대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탓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었다. 이용자에게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스마트폰에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해냈다. 다시 개발에 전념하여 2015년 8월, 계약서 제작 서비스 ‘오키도키’를 출시했다. 이용자는 개인 정보와 같은 필수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약서가 생성되고 사인(서명)을 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로아팩토리는 오키도키로 ‘K글로벌DB스타즈’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 1 애플티브 활동 사진
- 2 인투로 앱으로 최우수상 수상
- 3 오키도키 최우수상 수상





변호사 검색 서비스 '인트루' 계약서 작성 서비스 '오키도키'

로아팩토리에서 '모두싸인'으로

오키도키 출시 후 이용자들은 실제로 계약서 양식 자동 생성 기능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됐다. 이용자들은 오히려 '종이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에 더 좋은 피드백을 주었다. 이영준 대표를 비롯한 로아팩토리 구성원들은 '비대면 계약'에 집중해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변호사 검색 서비스 '인트루', 계약서 작성 서비스 '오키도키'에 이어 2015년 11월 전자계약 서비스로의 피봇을 결정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사명도 '모두싸인'으로 바꾸어 '비대면 계약 체결'을 핵심 기능으로 출시했다.

만나지 않아도 계약체결이 가능한 간편 전자계약 '모두싸인'

모두싸인은 비대면으로 이메일/카카오톡, 전용 링크를 통해 법적효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다. 문서 작성, 편집은 물론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기능을 로그인 한 번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완료되면 완료된 문서와 함께 계약의 주요 전자적 기록이 담긴 감사추적인증서가 자동으로 교부된다. 편리하고 안전한 계약 체결 이후에도 보관 및 관리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모두싸인은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했다.

26만 기업 및 기관이 선택한 국내 1위 전자계약

모두싸인은 기관과 고객이 인정한 국내 1위 전자계약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모두싸인의 누적 기업/기관 회원은 총 26만 명으로 대기업, 글로벌 기업, 유망 스타트업, 기관 및 협회 등

산업과 규모를 막론한 많은 곳에서 모두싸인을 도입하여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삼성전자, 롯데글로벌로지스, HD현대, CJ, SK를 비롯하여 포스코, 카카오, 토스, 당근 등 다수 기업은 모두싸인으로 계약 업무를 혁신하고 사내 전자문서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전자계약 서비스 도입으로 시작되는 큰 변화들

이영준 대표는 모두싸인 전자계약 서비스 도입이 '기업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모두싸인으로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직원의 업무 효율이 향상된다. 실제로 모두싸인 이용 고객의 82%가 1일 이내 계약 체결을 완료하며 더 빠르지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을 경험하고 있다. 단순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 외에도 더 가치있는 변화가 모두싸인 도입으로부터 시작된다. 종이 사용을 줄여주어 ESG 경영 실현을 가능케 한다.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기업에서는 여전히 문서 인쇄와 스캔에 수백, 수천 장에 이르는 종이를 사용해야 한다. 사후 계약서 보관 및 관리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종이와 문서파일, 라벨지 등 무분별한 종이 낭비를 바로 줄일 수 있다. 2023년 지난 1년 간 체결 완료된 문서 전체를 합하면 30년생 원목 4,300그루 이상을 보호할 수 있었다.

모두싸인 이용 장점

비용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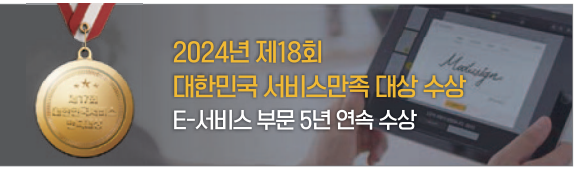
간편한 서명

다양한 형식의 파일 지원

계약상태 한눈에 확인

문서보안 가능

간편한 본인인증



모두에게 계약이 더 간편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약의 표준'이 되는 것

모두싸인은 '모두에게 계약이 더 간편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바꾼다'라는 미션과 '계약의 표준이 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다.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을 바꾸는 것 그 이상으로 '계약 = 모두싸인'이 되는 것이 모두싸인의 꿈이다. 모두싸인의 미션과 비전은 점점 실현되어 가는 중이다. 2024년 1월 기준 누적 이용자는 680만 명, 이는 경제활동인구(2900만명)의 1/4에 달하는 숫자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두싸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계약을 경험했다. 지금까지 모두싸인으로 사용된 서명과 문서는 총 3300만 개 이상이다. '연락하자'는 말보다 '카톡하자'는 말이 당연해진 것처럼 계약을 해야 할 때, 서명이 필요할 때 '계약하자'는 말이 아닌 '모두싸인하자'가 될 수 있도록 계약의 표준을 위해 모두싸인팀은 지금도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공공 디지털 행정 혁신의 시작, 모두싸인

올해 모두싸인의 새로운 도전은 '공공용 서비스 출시'다. 모두싸인은 6월 공공용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적극 장려되고 있다. 모두싸인은 민간에서 입증된 서비스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 혁신을



전자계약 업계 최초로 획득했던 ISO 27001획득에 이어, 전자계약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국제 인증 2종을 획득했다.

선도하기 위해 공공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모두싸인을 도입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준 대표는 “민간을 넘어 대한민국의 디지털 행정 혁신을 선도하여, 공공 업무 및 서비스가 모두싸인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모두싸인 직원 단체사진



지속가능 리더십을 실행하라

글_ 문성후 키투웨이 지속가능경영센터장



주요 약력

- 키투웨이 지속가능경영센터장
- 법무법인 원 고문
- 리더웨이 대표
- 연세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 경영학 박사/미국 뉴욕주 변호사

주요저서

- 리더의 태도(2023)
- 경영진이 꼭 알아야 할 ESG에센스(2022)
- 부를 부르는 ESG(2021)
- 부를 부르는 평판(2020)

ESG와 기업의 존재이유

21세기 경영의 주요 흐름은 단연 ESG입니다. ESG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는 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인 디지털 경영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ESG가 경영에서 필수 용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ESG라는 용어는 2004년 국제연합(UN)이 발표한 ‘먼저 관리하는 자가 승리한다’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ESG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기업, 조직, 개인들의 행동 지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형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각국의 연기금들이 ESG를 실행하지 않는 기업으로부터는 돈을 회수하고, 우수한 ESG 실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기업들은 ESG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ESG가 존재 이유를 모색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업은 ‘존재하는 목적(Why They Exist)’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기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기업의 목적입니다. 2019년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미국 200대 대기업 CEO들로 구성된

협의체)에 속한 CEO들은 한자리에 모여 2012년 채택했던 ‘주주를 위한 기업 존재’라는 목적을 2019년 ‘사회, 협력사, 투자자, 고객,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를 위한 기업 존재’로 변경했습니다. 기업의 목적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ESG 시대를 맞이하는 기업들에게 첫 번째 과제였기에 ‘목적 경영(Purpose Management)’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기업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ESG 시대를 맞이한 리더의 첫 번째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ESG 이슈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리더의 목적’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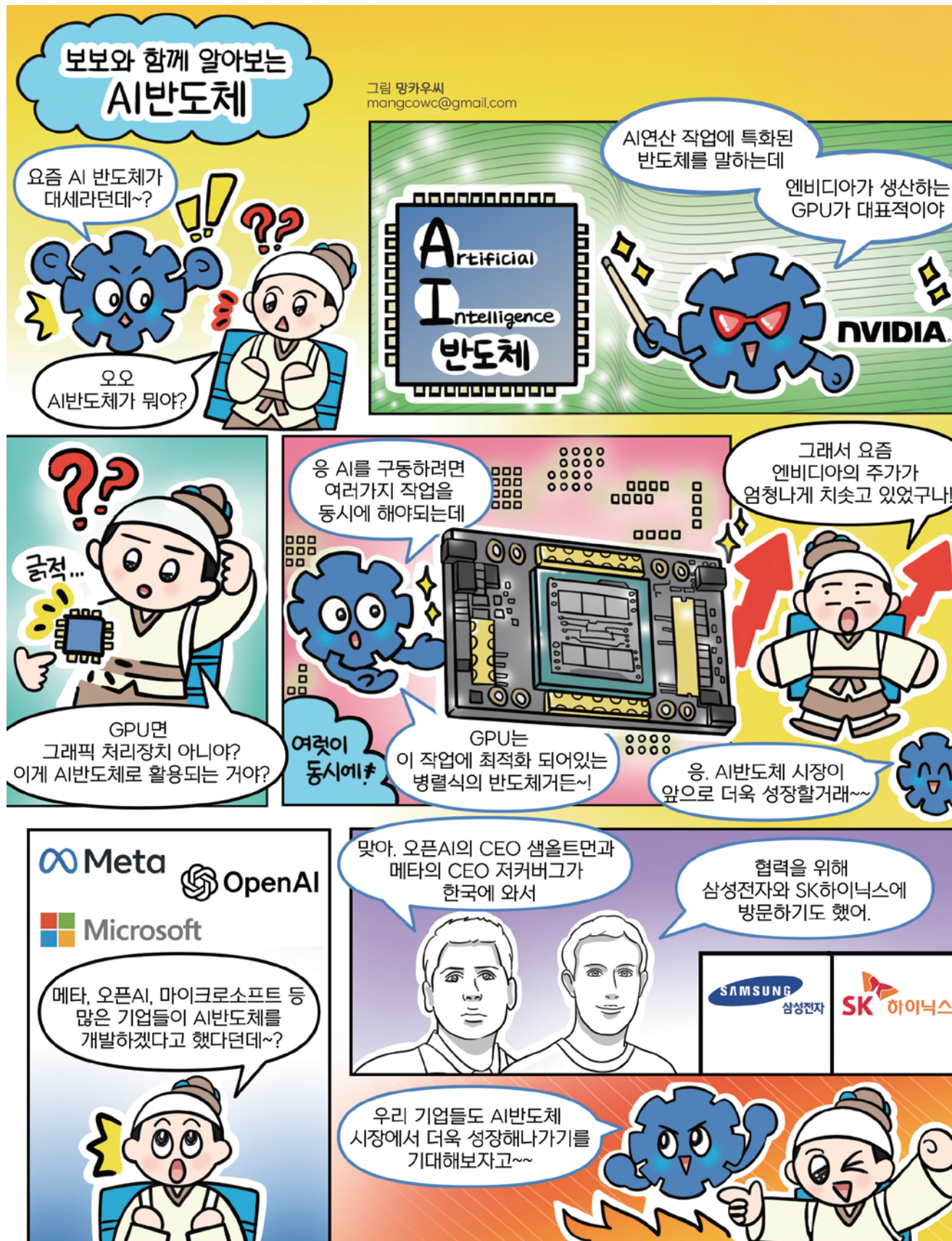
리더의 목적과 실행

리더가 일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냈다면 그다음에는 그에 걸맞은 실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ESG 시대에 걸맞게 리더가 추구하는 목적이 사회적 이익도 얻으면서 경제적 수익도 올리는 것이라면 우선은 기존의 돈 버는 방식을 개선해야겠지요. 기업이 돈만 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불법이라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 남을 희생 시키면서 돈을 버는 일, 사회적인 기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면 분명 돈은 벌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졌거나 불법과 위법을 넘나들며 합법으로 가장했던 기업들의 행태도 사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면 예전보다 훨씬 더 큰 비난을 받고 엄격한 잣대를 통해 사회적 판결이 내려 집니다. 리더가 옳은 방법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기 한 리더가 있습니다. 이 리더는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으며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 이 리더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조직에도 도움이 되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하지요. 이 리더는 목적을 분명하게 정했으니, 이제 방법만 찾으면 됩니다. 사실 이유(Why)와 방법(How)을 찾으면 ‘무엇을 할지(What)’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세답족백 경영

리더는 가장 먼저 사회적 이익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리더가 사회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사회에 플러스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즉, 당면한 이슈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요. 리더가 자신의 분야에서 사회적 문제를 찾아 해결하다 보면 워낙 그 분야를 잘 알다 보니 또 그 안에서 돈을 벌 기회가 보입니다. 즉, 사회적 이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늘릴 기회도 포착하는 셈이지요. 마케팅이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불편을 해소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하나의 마케팅 영감이 떠오를 수 있지요. ESG 시대의 탁월한 리더는 세답족백(洗踏足白)을 실천하는 리더입니다. 즉, 남의 빨래를 발로 꺾꺾 밟아 깨끗하게 해준다 보면 내 발뒤꿈치까지 깨끗해지듯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ESG 시대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리더십이란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도 해결하고 기회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하는 목적과 이유가 뚜렷하면 리더는 학습하고 연구하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리더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최고의 리더는 항상 변화해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GM의 잭 웰치가 주목받았고, 2020년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주목받았습니다. 리더는 미래를 대비하여 자신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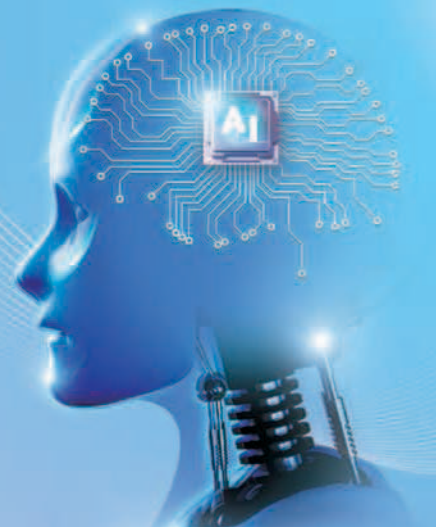




반도체의 미래 혁신 기술

AI반도체

최근 들어 주식시장에서는 AI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미국의 엔비디아는 연일 신고점을 돌파하며 AI반도체 열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AI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있는 이유는 AI가 앞으로의 미래혁신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AI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AI반도체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I(인공지능) 반도체란?

인공지능 반도체란 인공지능망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반도체로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기술 중 학습·추론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연산 처리를 저전력, 고속 처리하여 효율성이 특화된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구분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기능	범용적 목적 (단순한 인지 수준으로 제약)	인공지능 최적화 (복잡한 상황 인식·판단 등 가능)
특징	데이터를 프로그램 기반으로 순서대로 처리	대량의 데이터 동시 (병렬)처리

AI반도체의 눈부신 성장

반도체 산업은 그동안 매우 빠르게 성장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AI반도체 산업은 가파른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AI반도체의 종류로는 GPU, FPGA, ASICs, NPU 등이 있으며, 글로벌 AI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428억 불(57조 1,600억 원), 2027년에는 1,194억 불(155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AI반도체 시장의 밝은 전망은 AI반도체 기업의 주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AI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작년 3월 200달러대 었는데, 최근 9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의 CEO 샘올트먼은 무려 7조 달러

(9,300조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 유치해 AI반도체 개발과 AI 생태계 전반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AI반도체 시장 상황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있는 AI반도체는 GPU로 엔비디아가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GPU의 핵심 부품인 HBM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 앞으로 시장에서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협력사로서 HBM 반도체를 대량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만의 TSMC도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해 AI반도체 시장에서 성장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AI반도체 시장

이러한 가운데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오픈AI, 메타 등도 직접 AI반도체 개발에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픈AI의 CEO 샘올트먼과 메타의 CEO 저커버그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 반도체 생산 관련 협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 AI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



지식의 창고



1

부자아빠의 돈 공부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는 빈 지갑이다” 그러니 아들아, 꼭 부자가 되어라!

이용기 | 동양북스 | 17,500원



이 책은 200억 부자아빠가 자신의 아들딸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인생 조언이자 돈 공부의 결정판이다. 부자아빠는 금융 계통에서 14년 직장생활을 하고 22년 사장으로 살며,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어본 투자자이자 창업가다. 다양한 재테크에 지치지 않고 도전한 덕분에 서울, 경기도, 강원도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큰 자산을 일구었다. 부자아빠에게는 고등학교 교사인 아내와 회사에 다니는 사회초년생 딸과 아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 아들딸에게 말하듯이 비정한 세상에 사기당하지 않도록,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나쁜 놈, 악재를 걸러주는 현실적인 재테크 노하우를 모두 책에 담았다. <부자아빠의 돈 공부>는 부자가 꼭 되어야 할 이유, 부자 마인드, 안정적인 재테크의 비밀, 적극적인 재테크의 비밀, 돈 공부를 하면 얻게 되는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준다. 또한 안정적인 성향을 지닌 실제 딸에게 권하는 ‘안정적인 재테크’법과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기질을 지닌 실제 아들에게 권하는 ‘적극적인 투자 노하우’를 구분해서 정리했다. 독자 스스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재테크를 선택해 적용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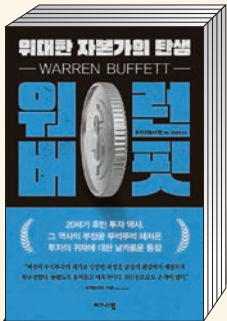
2

위대한 자본가의 탄생 워런 버핏

전 세계의 버핏 마니아들이 극찬한 워런 버핏의 오리지널 평전 재출간!

로저 로웬스타인 | 비즈니스맵 | 28,000원

수많은 아마존 독자들로부터 최고의 독자평점 별 다섯 개를 받은 워런 버핏 평전. 버핏을 연구하는 무수한 투자전문가들이 “이 책을 통해 버핏을 알게 되었고, 이 책을 통해 버핏에 빠져 들었다.”고 할 만큼 워런 버핏 스토리의 고전이자 오리지널 텍스트로 꼽힌다. 이 책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오랜 투자자이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0년 넘게 금융 전문 기자로 활동한 로저 로웬스 타인이 1991년 가을부터 버핏의 발자취를 추적한 기록물이다. 이 책에는 버핏이 지금껏 언론에 기고한 글은 물론이고 인간 워런 버핏의 생애 초기부터 현재까지를 세밀하게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흥미롭게 서술한다.



3

불멸의 지혜

현대 자기계발 도서의 시작.

이 책부터 읽으십시오

윌리스 D. 와틀스 | 스노우폭스북스 | 16800원

1341년. 이 책의 개정판 출간 횟수를 뜻하는 숫자다. 『불멸의 지혜』는 1910년 최초 출간된 책으로 113년 동안 11개 언어로 출간됐다. 이 책은 1910년 출간 당시 극소수의 몇몇 권력가들 사이에서 읽히다 자녀들에게 전달되었지만 1999년에 <부자가 되는 과학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며 완전히 공개되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명백한 사실은 <시크릿>으로부터 파생된 오류- ‘생생하게 바라고 꿈꾸는 것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메시지가 왜 현재에 공격받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원문이 담긴 책이라는 점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생각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개로 나뉜 열쇠의 한 쪽 부면이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다른 한 쪽에서 행동과 감사, 현재 상태에서 맞바꿀 가치가 준비돼야 한다는 메카니즘이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시크릿>과 완전히 대두되는 대목이 들어 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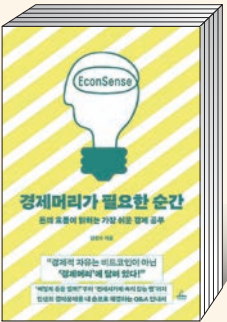
경제머리가 필요한 순간

돈의 흐름이 읽히는 가장 쉬운

경제 공부

한진수 | 청림출판 | 18,000원

세계적인 불황과 저성장 속에서 실업률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와중에도, 젊은 사람들은 대출을 해가면서 금융자산에 투자한다. 아무리 ‘경알못’이라 해도, 갈수록 먹고살기 팍팍해지는 자본주의의 현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일상의 질문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매일수룩 ‘남시성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전체적인 돈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제머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책은 “돈이 많으면 왜 좋을까?”와 같은 기초적인 질문부터 사업이나 대출의 여부가 결정되는 ‘시장과 금융’, 나의 경제적 자유를 늘려줄 ‘증권과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알짜배기 경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언다 보면 경제의 큰 그림은 물론이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팁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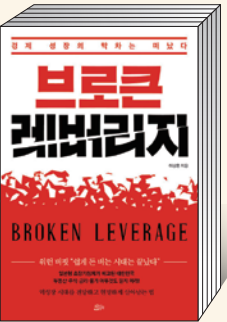
브로큰 레버리지

워런 버핏의 경고

“쉽게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상훈 | 책들의정원 | 19,000원

집값 하락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한국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조짐”이라거나 “일본형 불황의 신포탄”이라는 예측에 불안감은 높아지고 일본을 휩쓴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에서 시작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지만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일본형 불황의 가능성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한국은 그동안 한 번도 ‘진짜’를 겪지 않았다. 경제가 힘들다는 말은 하고 살았지만 인구·물가·경제성장률은 항상 우상향했다. 둘째, 일본 버블 붕괴와 유사한 시나리오가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부동산 몰락 이후 소비력 감소로 이어지는 과정이 그렇다. 워런 버핏은 거대한 불황을 이미 경고했다. 이책은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법을 부동산, 주식, 소비, 취업, 노후, 대책의 측면에서 알아봤다. 또한 일본 경제가 최근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불황 탈출의 실마리를 찾았다. 



(주)금양

‘꿈의 이차전지’ 4695 배터리 국내 최초 개발 성공

금양은 3월 5일 꿈의 이차전지로 불리는 ‘4695 배터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4695 배터리’는 지름 46mm, 높이 95mm인 원통형 배터리로 이미 개발해 둔 21700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금양의 4695배터리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 테슬라가 전기차에 장착하는 4680 배터리 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배터리팩 생산성이 31% 가량 향상되었으며, 배터리 관리시스템 제어 안정성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금양은 지난해 5월부터 기술 검토를 시작해 파일럿 설비와 연구개발 센터를 신축한 뒤 지난 1월부터 4695 배터리를 시범 생산 중이며 내년 6월부터 4695 배터리 1억셀 양산을 시작한 뒤 점차 생산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주)삼강금속

송승우 대표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삼강금속은 3월 4일 부산지방국세청이 개최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송승우 대표가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기업인을 비롯하여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삼강금속을 비롯한 지역의 20개 기업이 성실납세 및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훈장과 국무총리 표창, 국세청장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삼강금속 송승우 대표는 “어려운 시기지만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삼강금속은 1975년에 송정석 회장이 세운 부산의 대표적인 철강기업으로 송승우 대표 취임 이후 HD현대중공업 파이프 물류 위탁업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주)세정

어려운 이웃 위해 3억 2천만원 기부

세정은 3월 8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산시에 3억원 상당의 의류와 성금 2,000만원을 기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등 위기가정 긴급의료비, 취약계층 월동 난방비 지원 등에 쓰이게 되며, 성품은 부산지역 복지기관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세정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된 이후 1999년부터 지금까지 26년째, 총 84억 원 이상의 성금과 성품을 부산시에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세정 박순호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부산서비스운송사업조합

동서대학교와 버스 활성화 위한 클래스셀링 협약 체결



부산서비스운송사업조합은 3월 5일 동서대학교와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클래스셀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클래스셀링은 교과목을 판매한다는 의미로 기업이 요청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지도교수와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수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수요처에 판매하는 ‘주문식 프로그램’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부산서비스운송사업조합이 동서대학교와 대중교통의 이미지 개선과 편의성 등을 홍보하는 동영상 제작 산학교과목 개설과 운영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서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부산 버스의 지향점을 스마트 모빌리티 라는 역할로 제시하면서 이번 산학협력이 시민 편의 증대와 친근한 교통수단으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NK부산은행

탄소배출량 줄이는 ‘고그린 플러스’ 가입



BNK부산은행은 3월 14일 국내 은행권 최초로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를 사용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고그린 플러스’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고그린 플러스’는 국제특송기업 DHL이 지난해 국내에 출시한 서비스로, 회원사가 지속 가능 항공유 구매를 위한 추가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대신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감축하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BNK부산은행은 해당 서비스 가입으로 물류 운송과 유통과정 등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BNK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은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 해결에 사회적책임을 다하면서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
싱글몰트 하이볼 RTD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 2차 추가 발주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클래식 (Kavalan Classic)’을 베이스로 만든 싱글몰트 하이볼 RTD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의 2차 추가 발주를 진행하였다고 3월 4일 밝혔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하이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카발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를 출시했으며, 이번 2차 추가 물량 발주와 함께 소비자 접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규 판매 채널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위스키 수요 증가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위스키에 대한 지식과 안목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신제품 라인업 확장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기획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동성케미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미 LACP 비전 어워드 대상 수상



동성케미컬은 3월 5일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 주최 ‘2022/23 비전 어워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을 받았다고 알렸다. 비전 어워드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이 매년 세계 각국 기업과 기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을 평가해 시상하는 대회이다. 동성케미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총 8개 평가 항목 중 첫인상, 표지 디자인, 이해관계자 메시지 등 7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또한 전 세계 100개 수상작 가운데 10위, 국내 출판작 중에서는 유일하게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베스트 리포트 내러티브’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동성케미컬 관계자는 “앞으로 임직원 뿐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경성리츠
초록우산 인재 양성·결연후원 사업에 5,500만원 후원



경성리츠는 3월 18일 초록우산 부산지역본부에 지역 인재 양성과 결연 후원을 위한 후원금 5,50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지역 내 인재 양성 사업과 결연후원 사업에 사용 될 예정이다. 인재 양성 후원금은 꿈과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 1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결연후원금은 보호아동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 5명에게 매달 지원된다. 경성리츠 채창일 대표는 “2015년 처음 인재 양성 후원금을 받았던 아이들이 잘 자라 지금은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재 양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시와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



르노코리아자동차는 3월 18일 부산시와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은 르노코리아가 내연차 중심의 생산체계를 하이브리드 등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기지를 구축하는데 부산시와 상호협력해 나가고자 마련되었다. 르노코리아는 2028년 까지 부산공장에 미래차 생산을 위한 생산기지 구축, 설비 교체 비용에 1,180 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신규 인력 20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르노코리아의 ‘오로라 프로젝트’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로라 프로젝트’는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는 하이브리드 중형 SUV개발·생산 프로젝트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대표는 “이번 투자로 차세대 전기차 모델 개발과 생산까지 확정되면 오로라 프로젝트를 포함해 2027년 까지 1조 5,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남부발전(주)
지역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스포츠 용품 기증 사업 추진



한국남부발전은 부산 지역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스포츠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부산시 내 초등학교(부산진구 당평초등학교, 금정구 동현초등학교)에 테니스 라켓 등 스포츠용품을 보급하는 기부사업을 시행했다고 3월 12일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본부와 함께 3월 12일 당평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전교생이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운동 용품 구매비용을 기부금으로 전달하였다. 한국남부발전 이승우 사장은 “지역의 성장기 학생들이 체력을 키우며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기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 했다”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심신을 단련 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주)
부산-타이베이 노선 증편 매일 2회 운항



에어부산은 4월 27일부터 부산-타이베이 노선을 기존 주 7회에서 주 14회로 증편 운항할 계획이라고 3월 21일 전했다. 증편되는 부산-타이베이 노선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여 오후 3시 30분 현지에 도착하며, 귀국 항공편은 현지 공항에서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하여 같은 날 7시 55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부산-타이베이 노선은 2011년 에어부산이 국내 최초로 개설한 노선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이용객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에어부산이 운항 중이 부산-가오슝 노선과 여행 일정 연계가 가능 하여, 두 도시를 함께 여행할 수 있다. 에어부산 “이번 증편이 양 도시 관광객의 인적 교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민 교통편의 제고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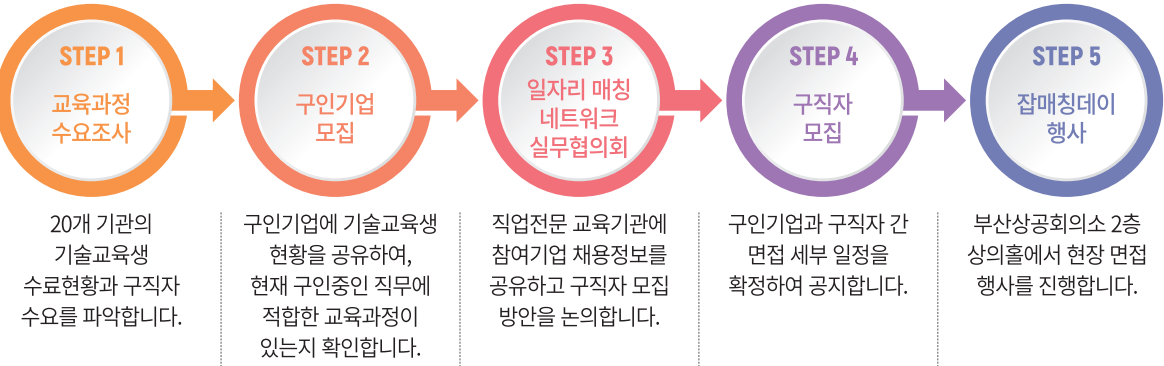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 매칭 플랫폼

20개 직업전문학교 기술인재와 함께합니다.

구인·구직 JOB 매칭데이

| 진행절차 |



YES

매칭률 UP

- 채용분야 맞춤형 해당기술인재 사전매칭
- 채용의지가 있는 기업에 실제 취업 희망 기술교육인재만 참여

YES

면접 대기시간 DOWN

- 구인기업과 구직자 세부 면접시간 사전 확정
- 행사 전 상세 면접 일정 안내로 대기시간 최소화

| 추진 일정 |

구분	일자					장소
구인·구직 JOB 매칭데이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3/28(목)	5/30(목)	7/11(목)	9/26(목)	11/28(목)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전문 헤드헌팅 시스템 도입

구직자에 지역 우수구인기업을 추천해드리며,
기업에 기술교육생을 상시 매칭합니다.

잡매칭데이 행사 안내

행사 일정을 공지하고 참여기업
채용정보를 안내합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연결됩니다



일자리 매칭 플랫폼
(<http://job.bcco.or.kr>)

구인·구직 등록방법

구인기업

구직자

구인의뢰

홈페이지 중앙 배너 클릭

구직신청

홈페이지 중앙 배너 클릭

구인정보등록

구인정보 작성 및 자체구인표 등록 必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

구직정보 작성 및 개인이력서(자기소개서) 첨부 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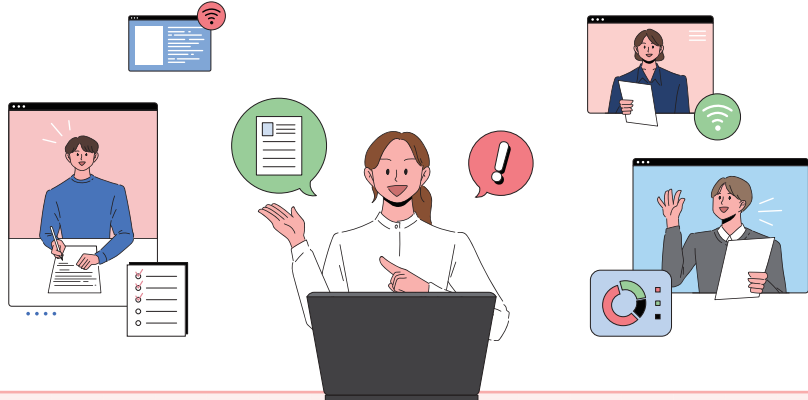
담당자 유선안내 예정

(문의: 051-990-7085)

직업상담사 유선안내 예정

구인기업의 채용조건에 적합한 지원자 알선

구직정보에 맞는 구인기업 알선





2024년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신규 희망공제 사업

부산지역 조선·기자재업종 기업의 정규직 채용 촉진을 위해 취업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모집기간: 2024. 3. 18. ~ 2024. 12.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 까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및 계좌개설(선발통보 시) 필수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만 18세 이상~
- **지원요건:** 2024. 1. 1. 이후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기자재업종*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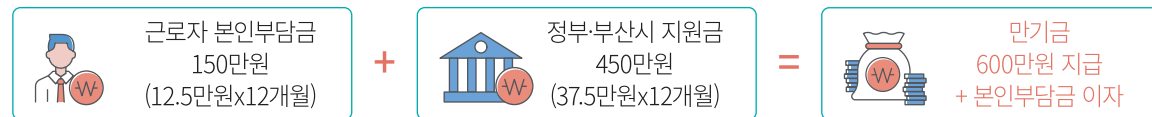
* 조선·기자재 업종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C311-선박 및 보트건조업) 해당 기업
- ② 상기 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
- ③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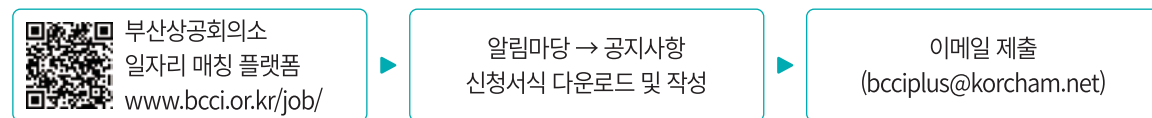


2024. 1. 1. 이후 채용되어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금액:** 근로자가 1년간 근속 시, 600만원 자산형성



신청방법



진행절차



문의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T. 051)990-7086, 7199 F. 051)990-7149, 7185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부산상공회의소는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부산소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코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오니 부산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내용

-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배정인원 마감 시 조기종료)
- ▶ **지원내용:** 2024.1.1.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2개월 간 월 60만원씩 지원(최대 720만원) ※ 2년 근속 시 장기고용 인센티브 480만원 추가지급
-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
- ▶ **기업 소재지:** 부산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하구(본사기준, 해당지역 소재 기업만 진행 가능)

참여대상

-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예외인정,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연 매출액: '참여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 **청년**
 - 2024. 1. 1.~2024. 12. 31.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전환)한 "만 15~34세" 청년 (단, 병역기간 인정)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애로청년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대학(원) 재학중인 청년은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work.go.kr/youthjob ※ 운영기관 「부산상공회의소」 선택

진행절차



신청문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T. 051)990-7083, 8~9 F. 051)990-7149



2024년 미래 친환경/에너지 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인재 육성 사업

부산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수소에너지로의 기술전환한 부산지역기업에 특허 및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분석료·장비활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모집기간: 사업공고일 ~ 2024. 12.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 까지)

지원내용

▶ 지원요건

- 기 업: 부산 소재 수소에너지 기술 및 제품개발 산업전환 기업
- 참여자: 연구직무 희망 구직자

▶ 지원사항 ※신청 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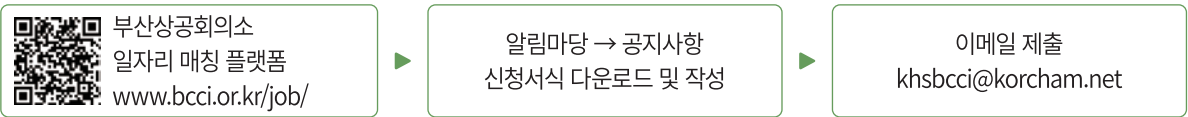
- 기 업: 연구직무 신규채용시, 1인당 650만원 지원 (최대 1,950만원)
- 참여자: 1:1 도제식 교육 20시간 지원

지원 대상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지원분야
참여기업	1명 신규채용시, 650만원 ※ 1개사 최대 1,950만원	① 시제품 제작 지원 ② 분석료 지원 ③ 장비 활용 등 인프라 지원 등
참 여 자	1:1 도제식 교육 지원 •과정 수립: 수행기관 내 전문인력 및 외부 전문가 활용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수립 •시간: 1명당 20시간 •강사: 기업 내 R&D 과제 PM 또는 외부전문가 •교육 방법: 1:1로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 지도	

※ 채용 약정(신규채용 후 1년 고용유지) 불이행시, 지원 불가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진행절차: [사업신청] → [기업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채용약정 체결] → [지원금 신청] → [성과 확인]

▶ 문 의 처: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T. 051)990-7085, 7198 F. 051)990-7149, 7185



부산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 안내

층수	면 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월관리비(원)	비고
	임대	전용				
5층	48평(158.4㎡)	29평(95.7㎡)	62,400,000	624,000	1,296,000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별도
10층	47평(155.4㎡)	28.4평(93.8㎡)	61,100,000	611,000	1,269,000	

※ 문의 : 경영지원본부 남정호 과장대리(051-990-7034)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 임대 안내

1F 대강당



좌 석 수 : 360석(극장식)
면 적 : 144평(476㎡)
현판규격 : 710cm×7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800,000원	냉 · 난방	140,000원

2F 상의홀



좌 석 수 : 200석
면 적 : 160평(528㎡)
현판규격 : 710cm×9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700,000원	냉 · 난방	140,000원

2F 국제회의장



좌 석 수 : 100석
면 적 : 99평(327㎡)
현판규격 : 480cm×8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8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80,000원
오후 14:00~18:00	35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20,000원
1일	500,000원	냉 · 난방	100,000원

2F 중회의실



좌 석 수 : 70석
면 적 : 57평(190㎡)
현판규격 : 480cm×8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2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70,000원
오후 14:00~18:00	28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00,000원
1일	400,000원	냉 · 난방	80,000원

회의실 사용료 할인안내



회원업체(당연)



회원업체(임의), 입주사, 3일(전일) 연속 사용업체 / 업체 시간외 냉난방비는 100% 할증

☎ 임대문의 : 경영지원본부 TEL 051.990.7150

지구촌의 중심 부산!

부산시민들에게는
꿈과 미래의 희망을!

부산상공인들에게는
된다! 된다! 잘된다!
더 잘된다!

초긍정적인 행복에너지를 보내드립니다.

제25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양재생 외 의원 일동



부산상공회의소